

**타이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주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의 예방을 접견하였다.**



추언 립파이 타이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2020 년 3 월 4 일 (화) 국회의사당 4 층 접견실에서 김제봉 (H.E. Mr. Kim Je Bong) 주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였다.

추언 국회의장은 “김 대사를 만나게 되어 반갑고, 태국 국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한다” 고 말했다. 동시에 김 대사한테 조선반도 정세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- 19 (COVID-19) 북한 내 발생 현황에 대해 물어봤다. 이는 추언 의장은 “태국 국회가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대사관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, 이 기회를 통해서 최고령도자, 최고인민회의 의장 그리고 조선인민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” 고 말했다.

이에 김 대사는 “오늘 추언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을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고, 올해 2020 년은 타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를 맺은지 45 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그 동안에 두 나라는 여러 수준에서 상호 교환방문을 하였다. 타이에서 새로 취임할 기회로서 제가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 두 나라의 국회차원 교환방문으로 시작하면 좋겠다”고 하였다.

뿐만 아니라 김 대사는 “조선반도 정세와 관련은 현재 미국의 태도를 보고 있긴 하는데 조선 측은 지역의 평화공존원칙에 중점을 두고 견지하였다”고 말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- 19 (COVID-19)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은 우리는 2020 년 1 월 22 일부터 북 - 중 (단둥시, 선양시) 국경 폐쇄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조선입국마저 모두 중단했고 중국과의 국경을 통과하는 거래 파트너는 중국인이 90%이라” 고 말했다. 이외에 김 대사는 “동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- 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조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- 19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고는 없다” 고 했다.

기자/편집: 태국하원사무처

번역: 나싸폰 슷티만,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